

## '택배의 바다'로 변한 대학 캠퍼스



▲ 사진=then24.com

중국의 대학이 택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상하이에 있는 젠차오대학 캠퍼스는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크고 작은 택배 물품으로 가득 찬다. 중국 대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많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제한 또는 봉쇄령이 내려지자, 학생들의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지 못한 부모들이 택배로 소지품을 보내면서 만들어진 풍경이다. 짐을 싣고 직접 학교를 찾은 부모도 있지만, 학교 입구가 통제된 탓에 역시 학교 직원을 통해 물품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도착한 소포를 보관하는 장소를 따로 마련했지만, 보관 장소는 의미가 없어졌을 만큼 넘쳐나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중국 대학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장성 낭보시의 한 택배 배달원은 “이 지역에 있는 8곳의 대학에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면서 “이달 첫째 주 택배량은 지난달 같은 주에 비해 12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택배의 바다’ 사진을 본 한 네이버는 “중국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면서 “20~30년 전에는 타지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 그릇이나 비누가 든 가방 몇 개만 들고 기차를 20시간씩 타야 했다.” 면서 “현 세대 학생들은 빈손으로 학교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 손가락 욕하고 스타 된 할머니

대통령에게 손가락 욕을 한 아르헨티나 할머니가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지난달 18일 안나 마리아 할머니는 그가 운영하는 가게 앞으로 대통령 차량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길에 나와 기다렸다. 그는 대통령이 탄 차가 등장하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자신에게 욕을 하는 할머니에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

령은 “몸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라면서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는 계속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그래요,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화답했다.

당시의 상황은 그의 팔이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며 화제가 됐다. 일약 화제의 인물이 된 할머니는 이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가는 곳마다 “함께 사진을



▲ 사진=scmp.com

찍자!”, “사인을 부탁한다.”며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이다.

할머니는 “사회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의 반응이 불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코로나19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 경찰 출신인 남편을 코로나19로 잃었다. 운영하고 있는 가죽제품을 파는 가게는 빚이 쌓였다.

할머니는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정부가 코로나19에 잘못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대통령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분노가 치밀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손가락 욕설에 열광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분노만 쌓여가는 사회가 두렵기도 하다.”고 전했다.

## 매년 ‘딸의 첫 등교일’ 사진으로 기록한 엄마

10년 넘게 매년 딸의 첫 등교 일마다 기념사진을 촬영한 영국 여성의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서리주 레드힐에 거주하는 다그니 버넷(53)은 딸 클로이(14)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10년 넘게 매년 첫 등교일에 기념사진을 찍어 왔다.

다그니는 딸에게 살짝 옆으로 선 채 시선은 정면을 향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웃는 순간에 사진을 촬영했다. 촬영 장소는 자택 앞이었다.

다그니는 약 7년 동안 난임 치료 끝에 39세에 클로이를 가졌는데 딸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한 장 한 장의 사진에서도 느껴진다.

다그니는 “딸은 이 사진들을 매우 좋아한다. 아이가



▲ 다그니 버넷(왼쪽)과 딸 클로이(오른쪽). 사진=the-sun.com

14세가 되면서부터 난 ‘다리를 제대로 해’ 등 포즈에 대해 외쳐야 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지만 오래된 사진을 보면 어릴 적 학교에서 경험한 다양한 추억이 되살아난다.”면서 “매년의 변화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클로이가 대학에도 진학하면 기념사진은 앞으로 몇 년 더 찍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장님, 챙기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께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 [323] 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